

**경제 프리즘**

**광은 금리 최고 0.3%포인트 ↑**

광주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II'는 최고 연 2.4%에서 2.7%로, '스마트모아드림적금'은 2.1%에서 2.4%로, '솔솔한마이클에·적금'은 2.2%에서 2.3%로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인상된 금리는 영업점 7일부터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이우경 부장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주로 가입하는 정기예·적금의 금리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간접운용자산 2,000조원 돌파**

펀드와 신탁, 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계의 간접운용자산 규모가 2,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금융투자업계의 간접운용자산 규모는 2,002조원으로 처음 2,000조원 선을 넘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투자일임·투자자문·PEF(사모투자펀드) 등 간접운용자산이 1,026조원으로 가장 크고 신탁회사(신탁) 845조원, 투자자문사·증권사·선물회사(투자일임·투자자문) 131조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간접운용자산 규모는 2010년 말 946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1,871조원으로 커졌고 올해도 3월 말 1,931조원, 6월 말 1,975조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로또(836회)**

당첨번호	1, 9, 11, 14, 26, 28 보너스19
등위	당첨금액
1등	1,257,843,670원
2등	47,338,203원
3등	1,316,130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388회)**

등위	당첨번호
1등	1조 810653
	2조 608421
2등	1조 810652
	1조 810654
2등	2조 608420
	2조 608422
3등	각조 360193
4등	각조 66953
5등	각조 891
6등	각조 19,63
7등	각조 3,5

# 청년 10명 중 4명 “중기 취업 하겠다”

## 거주지 인근 선호 급여·근무 환경 중요 ‘단순 노무직’ 구인난...정책 마련 절실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10명 중 4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단순 노무직’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300개사와 만15세~29세 청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및 정책의 견 조사’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 조사’ 결과 청년층의 43.8%가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었으며, ‘미정·깊이 생각지 않음’ 38.0%, ‘취업 의향 없음’은 18.2%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미지는 ‘열악한 환경’ (29.3%)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성장(발전)’ (28.4%)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동시에 존재했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뉴스기사(지면, 인터넷 등)’ (66.2%)였다. 청년층이 취업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 ‘급여·복지수준’ (48.3%), ‘근무환경·여건’ (26.1%) 순이었으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위치로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20.9%)보다는 ‘거주지 인근 소재 중소기업’ (62.9%)을 더 선호했다.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및 정책의견 조사’ 결과,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81.4%는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50%이상(80%이상 52.7%, 50~80%미만 28.7%)인 것으로 나타났고, 50%미만 채용한 기업은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50% 미만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지역소재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서’ (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47.7%가 지역인재의 수도권·타지역 이탈 수준

이 심각하다고 체감하고 있었고 향후 지역인재 활용 의사가 있는 기업 비율은 82.0%였으며, 88.0%가 지역인재의 원활한 공급이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층 모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효과 있을 것이라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복수응답)은 ‘채용보조금 지급(확대)’ (60.0%), ‘주거시설 교통인프라 확충’ (32.0%)을 주로 꼽았으며, 청년들은(복수응답) ‘근무·작업환경 개선’ (56.2%),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 (54.6%)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

종과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간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용이 가장 어려운 직종으로 ‘단순노무직’ (22.0%)을 많이 꼽았다. 제조업·IT업종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는 청년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으로 ‘사무·관리직’ (50.9%)을 가장 선호한 반면, ‘단순노무직’은 가장 낮은 5.3%에 불과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청년들 모두 대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성장을 위해 사무관리, 영업, 기술·기능직 등에 국내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광주 평동산단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 김형환 광주국세청장 평동산단 중기 간담회

### 경영애로 청취...“허용범위 내 최대한 세정지원”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광주 평동산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서 입주기업 대표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평동지역기업경영협의회의 김 청장 초청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컨설팅 위주의 간담회 조사를 실시하고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 김영록 ‘친정체제’ 잡음

▶1면에서 계속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최 특보는 지사와 갑을관계 협약을 맺을 뿐 활동비 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다”며 “500만원 이하로 주면 좋겠다는 지사의 의중에 따라 액수를 책정했고, 한 달 한차례 활동실적 보고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라인의 채용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정무팀의 핵심으로 꼽히는 A씨가 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이달 말 5개월짜리 계약이 끝나는 B씨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1년 기간의 기간제 채용 예산을 세웠다는 의혹이 단적인 예다. B씨는 현재 해당 부서와 정무 파트를 오가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소속 부서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내년 기간제 채용예산을 요청해

확보했고, A씨와 협의 등은 없었다”며 “조만간 공고를 내는 등 다시 정식 채용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조용하게 움직이며 지사를 보좌해야 할 정무라인에서 벌써부터 잡음이 새어 나오는 것을 허투루 넘길 수 없다”며 “정무기능의 부실이나 소위 ‘오버’가 도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만큼 차체에 내부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도한바퀴 누적 이용객 3만8,366명

### 전년비 24% ↑ ...금호고속 “노선 다양화·서비스 향상”

금호고속이 운영하는 전남관광지 순환버스 프로그램 ‘남도한바퀴’가 누적 이용객 3만8,366명을 기록했다.

9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남도한바퀴’는 지난 3월 17일부터 이날까지 1,063회가 운행됐다.

누적 이용객 수는 3만8,366명으로, 지난해 총 이용객 3만983명 대비 7,383명(24% ↑)이 늘어난 규모다. 또 1회당 평균 이용객 수는 36.1명으로 지난해 32.3명에 비해 3.8명이 증가했다.

금호고속은 이용객 증가 이유가 ▲22개 시·군을 경유하는 26개의 노선 운영 ▲지속적인 코스 추가 ▲모바일 스탬프 모으기 등 이벤트 실시 ▲승무원 서비스 향상 ▲월요일 코스 신설 등을 꼽았다.

금호고속은 “올 한해 이용객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토·일요일에 낮조와 야경 등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2~3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금호고속은 9일 전남관광지 순환버스 프로그램 ‘남도한바퀴’가 누적 이용객 3만 8,36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호고속 제공

**경매비법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교육  
 · 입장비등 교육비 1200만원  
 · 배우면서 투자가능!  
 (주)오천경매.010-3605-5000

**토지**  
 ※임야/단독섬/지분환영※  
 바로잡니다.010-6834-7400

**정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중앙시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월 박백성 302-0316-649511

개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함께 합니다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시세 - 1억1000만원  
 ■ 급매 - 7100만원  
 ■ 현재 보5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문의. 010-6834-7400